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도자료</h1>		LA한국문화원 <a href="http://www.kccla.org">www.kccla.org</a>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8.10.30(수)	담당자	최희선(323-936-3014)	

## 제28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대대로 물려받은 조국강산을 언저 나 잊지 말고  
 노래부르자 높은 산 맑은 물이 우리 복이다 어느  
 곳가서든 저노래부르자 여래여 우리에겐 조  
 국이 있다 내 사랑바칠곳은 오직 여기 뿐 신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겨 이이 강산을 노래부  
 르자

이제서야 인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이다. 이 시는 조국강산을 노래하며, 조국강산을 잊지 말고 노래부르자, 높은 산 맑은 물이 우리 복이다, 어느 곳가서든 저노래부르자, 여래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바칠곳은 오직 여기 뿐 신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겨 이이 강산을 노래부르자.



이준수



김성복



왕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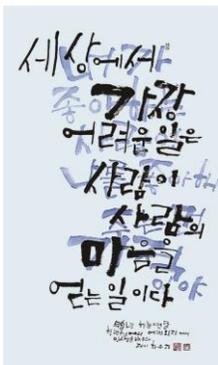


오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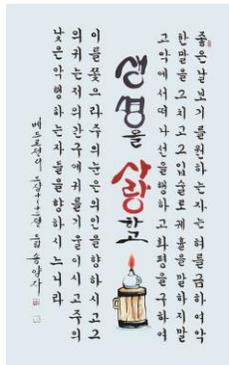
내 영혼이 흔들리며 울고 있는 것 같고  
 슬픔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고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그 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불꽃산이 거칠게 흐르거나  
 내 가슴에 이르러 내 영혼이 갈라진다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내 영혼이 갈라진다  
 주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불꽃산이 거칠게 흐르거나  
 내 가슴에 이르러 내 영혼이 갈라진다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내 영혼이 갈라진다  
 주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흔들리며 울고 있는 것 같고 슬픔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고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그 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불꽃산이 거칠게 흐르거나 내 가슴에 이르러 내 영혼이 갈라진다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내 영혼이 갈라진다 주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불꽃산이 거칠게 흐르거나 내 가슴에 이르러 내 영혼이 갈라진다 한숨을 내쉬고 싶은데 내 영혼이 갈라진다 주애수와 동행한다 그 어리나 하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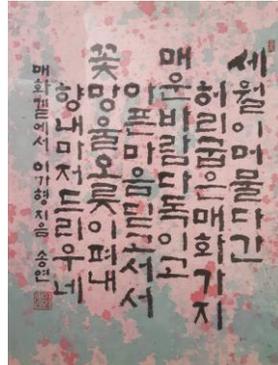
이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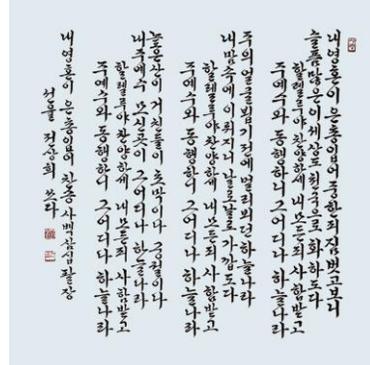
황은자



송양자



이영애



전상희

- ▶ 전 시 명 : 제 28 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 ▶ 일 시 : 2018.11.8(목)-10.17(토) / 개 막 식 : 2018.11.8(목) 5:00pm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미주한인서예협회
- ▶ 예 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혹은 323-936-3014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서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제28회 미주한인서예협회(회장 전정웅) 전시를 11월8일(목)부터 11월17일(토)까지 LA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90년 창립한 미주한인서예협회의 이번 전시에는 서예의 기본 서체인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체를 비롯하여, 멋스럽게 표현된 한글과 현대서, 영자서, 그리고 문인화, 사군자 등을 포함하여 31명 작가의 작품 40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예는 점과 선, 먹의 농담, 필압의 강약, 글을 쓰는 속도, 그리고 문자 간의 비례와 균형, 배치 등에 의하여 의사 소통을 위한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문자예술로도 그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장르라 할 것 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와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언급했다.

또한, 미주한인서예협회 전정웅 회장은 “서예를 사랑하는 예술인의 모임으로 발족한 미주한인서예협회 전시가 벌써 2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작가 한 분 한 분 모두 성심껏 제작한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의미있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회원 모두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전시 개막식은 2018.11.8(목) 저녁 5시에 시작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323-936-3014 혹은 [exhibition@kccla.org](mailto:exhibition@kccla.org)로 문의하면 된다.